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4월 23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친환경농업 기초교육 운영-1면	서부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친환경 농업 기초 교육’ -2면	서부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친환경농업 기초교육 운영 서부농업기술센터 신청자 모집-6면	서부농업기술센터	한라일보
○	[기고] 청년농업인에게 묻다-14면(강경안)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수확의 기쁨-6면	-	한라일보

(제민일보: 2024년 4월 23일)

○ 친환경농업 기초교육 운영-1면

친환경농업 기초교육 운영

제주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친환경농업 기초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교육생 3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와 실천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은 △친환경 농업의 이해 △친환경 인증 절차 △친환경 농자재 제조실습 등으로 이뤄진다.

4.23. 제민일보 1자

(제주일보: 2024년 4월 23일)

○ '친환경 농업 기초 교육' -2면

'친환경 농업 기초 교육'

5월 2·3일 보타리농업학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

환경농업 기초교육'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제주보타리농업학교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친환경농업 이해 및 사례 ▲친환경 인증 절차 ▲친환

경 농자재 제조 실습 등이다.

교육 신청은 24일 오전 9시부터 전화(760-7931~2)나 서부농업기술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 수강생은 3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4.23. 제주일보 2자

(한라일보: 2024년 4월 23일)

○ 친환경농업 기초교육 운영 서부농업기술센터 신청자 모집-6면

친환경농업 기초교육 운영 서부기술센터 신청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초교육'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청정 제주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친환경농업에 관심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3일 이틀간 제주시 애월읍 소재 제주보타리농업학교에서 이뤄진다.

교육 내용은 친환경농업 이해 및 사례와 친환경 인증 절차, 친환경 농자재 제조실습(천연살충제, 발효퇴비, 미생물 배양, 종합영양제) 등이다.

교육 신청은 24일부터 전화(760-7931~2)나 방문(한림읍 월림7길 90)으로 이뤄지며, 모집 인원 35명 선착순 마감이다. **한라일보 6**

(제주매일: 2024년 4월 23일)

○ [기고] 청년농업인에게 묻다-14면

기고 청년농업인에게 묻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장



강 경 안

2022년 도내 농가인구 7만4465명 중 19~45세의 청년농업인은 1만2819명으로 17.2%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전체의 청년농업인 비율 1.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하지만 2020년과 비교해 2983명 감소했다.

각 지자체와 기관에서는 농촌 고령화의 대안으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는 풀어야 할 문제가 다소 많아 보인다. 청년이 농촌에 정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청년농업인 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중 영농경력 5년 이상은 38.6%, 경영체 미보유자는 89.5%였으며 부모가 다져놓은 기반을 일부 승계한 비율이 54.4%로 높았다. 그리고 농과 계열 미전공자 비율이 73.8%로 높아 품목별 재배기술의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영농규모는 대부분 3,300~6,600㎡였으며 품목별로는 노지감귤 42.1%, 한라봉 14.1%,

레드향 14.1%, 천혜향 8.9%이다. 이 외에도 레몬, 양봉, 메밀, 당근, 비트 등 다양한 품목에 종사하고 있었다.

또한 직거래 매장 운영이나 농산물 가공 등 농산물 활용 판매활동에 적극성을 보였으며, 희망하는 교육 유형에서도 농산물 유통 28.1%, 재배기술 17.5%, 스마트팜 14%로 판매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정밀 관리에 관심을 보였다.

청년농업인이 생각하는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는 토지구입비와 운영자금 조달이 61.4%, 재배기술 부족이 17.5%였다. 더불어 농업·농촌 정착 실패의 주원인을 경제적 문제로 꼽으며 부모의 기반을 물려받는 승계농으로서가 아닌, 청년농업인의 자립을 위한 현실적인 정착 방안 지원과 현재 물가에 맞는 보조금 책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농촌에서의 안정적인 삶과 미래를 꿈꾸며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농업인에게 멘토·멘티사업, 직거래 활성화, 영농정착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지원해 영농 창업 및 착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돕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농촌에서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이 농업·농촌으로 꾸준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4.23. 나가
제주매일 14

(한라일보: 2024년 4월 23일)

○ 수확의 기쁨-6면



수확의 기쁨 22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의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브로콜리를 수확하고 있다.

강희만기자